

안전을 입고, 일자리로 다시 찾은 활력

강진군,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강진군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지난 3일 읍면별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11개 읍·면 지정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안전하고 활기찬 사업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이 참석해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마음가짐을 다지고, 직무·안전교육을 통해 현장 활동의 안전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교육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우리의 다짐' 낭독, 퍼포먼스가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읍·면별 직무교육과 외래강사 안전교육을 실시해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실무 역

량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발대식의 안전 퍼포먼스는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머리안전-모자착용", "손보호-장갑착용", "몸안전-조끼착용"을 함께 외치고, 강진원 군수가 노인일자리 대표에게 모자·코팅장갑·형광조끼를 착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 퍼포먼스는 참여자들이 안전수칙을 쉽고 명확하게 체득하도록 했다.

군동면 노인일자리 참여중인 A씨는 "처음엔 '일은 익숙한데 안전교육이 필요할까' 했는데, 오늘 직무랑 안전을 같이 배우니 현장에서 뭐부터 챙겨야 할지 정리가 됐다"며 "모자·장갑·조끼까지 직접 착용해보니 '안전이 곧 내 건강'이라는 다시 한번 느껴 올해는 더 조심하고 책임 있게 참여해야겠다"고 교육 소감을 말했다.



기념촬영 때는 안전장비와 피켓 등을 활용하고, 참여자 전원이 빨간 코팅장갑을 착용해 '안전한 일자리' 메시지를 함께 표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노인일자리라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소중한 사회참여"라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교육과 현

장 점검을 강화해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읍·면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활력을 되찾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현장 중심 노인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담양 창평고등학교, 7년째 이어온 따뜻한 지역 사랑

졸업생 교복 판매 수익금 168만 8,200원 기탁

담양군 창평면은 지난 4일 창평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교복 나눔 판매 수익금 168만여 원을 창평면사무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창평고등학교는 지난 2019년부터 졸업생들이 물려준 교복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올해 역시 졸업생들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교복 판매 행사를 진행했으며, 모인 수익금 전액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담했다.

임하람 창평고 학생회장은 "졸업을 앞

두고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선배들의 따뜻한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민 창평면장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온정을 전해주는 창평고 학생들과 교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기탁금은 창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양제철소, 설 명절 '희망의 쌀' 전달

8천만원 상당,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 유관단체 등에 지원

지난 2월 4일, 광양시청 창의실에서 포스코광양제철소(소장 박종일) 후원으로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희망의 쌀'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포스코광양제철소 박종일 행정부소장과 임직원, 김재경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관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직원, 광양시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달한 백미는 총 8천만 원 상당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관내에서 생산된 쌀로,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 유관 시설·단체 90여 곳에 배부될 예정이다.

박종일 행정부소장은 "물가 상승과 경

기 침체로 모두에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포스코광양제철소의 나눔의 손길이 더 많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 급여 1% 나눔 활동이 지속적이고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이사장은 "지난 15년간 지속된 쌀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수혜 기관과 대상자에게 소중히 전달해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희망의 쌀 전달은 소외계층에게 식탁 위의 한 끼를 넘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나눔"이라며 "매년 지역사회와 이윤을 나누며 사



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는 포스코광양제철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따뜻한 손길이 모여 모두가 넉넉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광양제철소는 2009년부터 시작한 '희망의 쌀'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35회에 걸쳐 백미(20kg) 총 20억 6천여만 원 상당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을 실천해 오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성군 태권도협회 제9·10대 회장단 아취임식 개최

"종합우승의 영광 이어 지역 화합과 이웃사랑 실천한다"

지난 2월 7일, 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1층 다목적실에서 장성군 태권도협회 제9대·제10대 회장단 아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장성군수, 군의장, 도·군 의원 및 주요 기관 단체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과 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아취임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후원 물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제9대 임지영 회장 (이임): 2025년 제

64회 전남제전에서 태권도 종목 종합우승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장성군 태권도의 위상을 높였다.

제10대 임채일 회장(취임)은 "지역 태권도 활성화와 화합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회원·가족·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소통과 친목의 장을 확대하고, 장성군 태권도협회는 앞으로도 실력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체육 단체로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장성/황해연 기자

함평군 월야면, '심봉사도 눈뜨GO 밝은 눈 만들기' 사업 추진

전남 함평군 월야면은 "지난 4일부터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심봉사도 눈뜨GO 밝은 눈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야면 지역특화사업인 '심봉사도 눈뜨GO 밝은 눈 만들기'는 시력 저하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이나 거동의 불편함 등으로 적절한 안경을 맞추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월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와 가온안경(대표 김유한)이 함께 추진하며, 월 1회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저소득·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돋보기 지원 ▲시력에 맞는 안경 교정 ▲올바른 안경 사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월야면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병행해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박승이 월야면장은 "어르신들께 실질적



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신 가온안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제54회

강진 청자축제

휴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